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3월 15일 (제104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컬럼

감사하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에서 모임이나 행사, 예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몇 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짓지 못하는 게, 달리지 못하는 말, 날지 못하는 새, 그것이 설교를 못하는 요즘 내 심정이다. 기독교를 탄압한다면야 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겠지만, 지금의 사태는 국가의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인지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몇 주째 영상예배로 대처하는 마음은 편치 않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 마음껏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굴뚝같다.

그러나 또 한편,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된다. 다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아무 거리낌 없이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던 일들이 너무 당연했다. 옆 사람이 기침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몇 달 전... 이런 상황들이 왜 그리 감사한지. 그때는 몰랐다. 너무 사소해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신 공기와 태양, 그리고 밤과 낮, 물과 바람...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고, 부족했던 적이 없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이참에 깨닫는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해본 적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하지 못했으리라.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잠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나쁜 것이 아님은 이를 통해 감사를 생각하고 배울 수 있어서다.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의 편안함에 감사하고, 마스크 한 장의 귀중함을 알고 그동안 흔하게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자. 잃은 후에 그것이 감사했음을 깨닫는 자는 어리석다. 누리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자. 그러면 이를 주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2주가 넘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해내려는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 교회들이 다양한 지혜를 발휘하고는 있지만, 다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식민 치하에서도, 6·25전쟁 중에도 모여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일개 전염병에 불가항력으로,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

다.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듯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이겨내는 것이 지혜 아니겠는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27:12, 잠22:3).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런 때를 예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둘 셋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처음 우리가 인터넷과 위성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며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는가.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오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터넷예배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방송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예배영상을 검색하고 목사님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예배영상을 들고 88체육관 방송실로 달려가 시간에 맞춰 방송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것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하시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편안히 예배를 중계하기만 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절실함이랄까.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빛은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 생활해왔는지 돌아보게 한다. 찬송가 370장(새찬송가 330장) ‘어둔 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0%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페스트(흑사병)가 창궐하던 그 시절에는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했었다. 현미경이 개발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것이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인 지라 당연히 그 시절에는 엄청난 공포로만 다가왔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모여 기도하다가 수인성 전염병인 페스트가 더 확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한다. 지금 코로나19가 급 확산되는데 모 종교단체가 감염원 역할을 한 것이나 비슷한 이야기다. 그때는 지식이 없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분명한 원인과 전염 경로, 대책을 알게 된 시절이니 그에 맞는 대처로 이 위기를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지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히10:25), 이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는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신다. 우리는 더욱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 더욱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일상이 움츠러들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텅 빈 성전을 보며 흩어져버린 양떼를 걱정하는 목자의 심정이나 성전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봉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픈 성도들의 마음을

쉬 되리니’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직분을 잘 지켜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하라’고 독려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상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각성하게 한다. 물론 이 전염병사태는 결국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세고 견고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날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성숙을 우리 각자가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서로 독려하며 힘을 내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16)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역전승을 맛보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마11:4)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 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위의 상황은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눅7:21).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병에 걸린 자, 고통 받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7:22).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적 실재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고로 보고 듣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요4:48).

한번 다운되었다고 KO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오셨습니다(눅4:18).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 이것이 예수님 최후의 일성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죄와 가난과 저주와 병에서 해방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역전승을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고통과 수욕을 당하고, 강도 같은 중범죄자나 달리는 수치스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습니

다. 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 답이 있는 법, 지금까지 가난했지만 부유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법이 분명 있고, 저주의 사슬이 끊기고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삶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이는 이미 다 이루신, 마귀에서 역전승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까요? 먼저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보리라”(요11:40). 그랬더니 죽은 자나를 된 송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14:21~23).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진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감히 가난과 병과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이 엄습할 수 없지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2:5)고 지시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향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그대로 했고, 떠다 주라 해서 가져다주니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객들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요2:10)라고 했겠습니까? 초상집이 될 뻔했던 잔칫집이 다시 흥겨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초상집같이 슬프고 우울한 삶이 잔칫집처럼 흥겹고, 모든 것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 그들이 슬픔에 싸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그랬더니 죽은 자나를 된 송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니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죽었던 기업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산 같은 문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의 문둥병이 걸린 사마리아인에게도, 누가복음 18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후에도,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온 후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믿음으로’ 행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같은 남편을 섬기는데 브닌나는 아이를 잘도 낳습니

다. 그런데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그런 한나 앞에서 브닌나는 행세를 해대고 멸시도 합니다. 한나는 가슴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삼상1:10).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고, 더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삶 속에 열매를 맺는 비료는 기도 외에 없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조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모르드개에게 부탁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위해 합심기도 해줄 것을요(에4:16).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셔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부림절을 맞게 됩니다. 사면초가 같은 당신 삶에도 부림절이 올 수 있습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하면요.

연극은 막이 내려야 끝난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가 자식이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마7:11)? 다 마귀의 소행입니다. 마귀가 귀신을 투입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오로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었던 것을,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9회 말 투아웃까지 3-0으로 지고 있던 야구가 만루홈런으로 역전될 때의 기쁨을 아시지요? 그런 기쁨이 우리 삶에 찾아오도록 이제부터 순종과 믿음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인생은 일모작이 아니라 다모작이니 첫 농사를 망쳤다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역전승해봅시다. 가난에서 부유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할렐루야!

힘내라 대한민국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벌써 두 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수준임을 언급할 만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독감이나 홍콩독감, 신종 플루처럼 세계적 대유행의 과정을 거쳐 계절 독감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커졌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큰 인구 5,500만의 후베이 성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이란은 의료당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실 이런 대응이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를 맞는 자세다. 무슨 뜻이냐면 워낙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를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진단능력이나 의료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에 현실을 인정하고 확산저지보다는 감염자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다른 방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질병관리본부를 필두로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 1명의 감염자조차 찾아내어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어찌보면 지나치게 무모한 도전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가히 상상 이상이다. 현재 하루 코로나19 진단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다. 세계보건계가 한국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생업을 뒤로하고 의료현장으로 달려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투는 뉴스를 통해 지켜보는 온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국가적 위기 앞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왔다. 우리의 도전이 비록 무모해보일지라도 반드시 세계 방역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족을, 내 회사를,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부족한 마스크 공급에 정말 필요한 환자나 의료진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도전이 세계 방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쳐온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서로 박수를 치며 힘내라 격려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카타콤 사람들처럼...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것이다.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피를 먹는다는 이유를 달아 박해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 시내의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다. 그 굴이 바로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다.

그 무렵 로마시에 열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죽은 시체로 누부러져 있었으나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시체에 손을 대면 전염되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시내의 시체가 거리마다 쌓여있었고 시체 썩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하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것이다. 곧 로마 시내의 시체가 모두 치워지고 깨끗하게 되자 로마는 고관으로부터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이 더해갔다. 도대체 검은 옷을 입은 저들은 누구일까? 로마 정부에

서 자세히 알아보니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신에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열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나타나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세상에 열병이 돌거든,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 갚아주시옵소서”(왕상8:37~40).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으로 총체적 몸살을 앓고 있다. 재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 세상에 빛을 발할 때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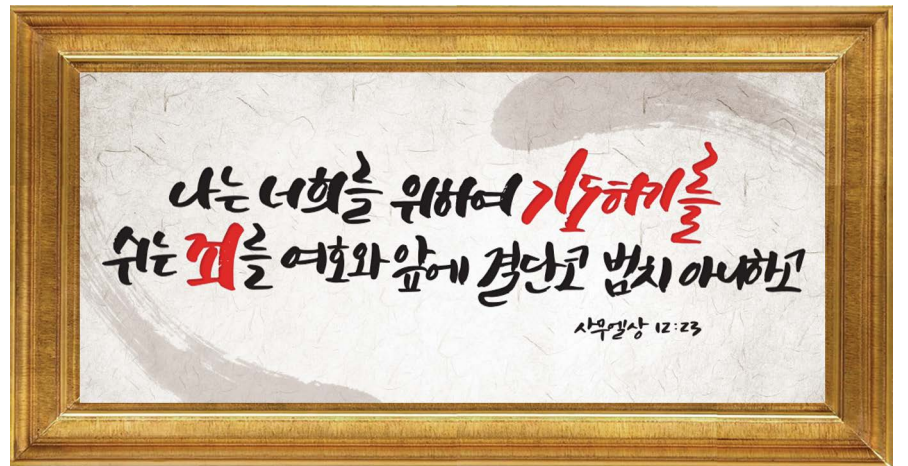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의 세공장을 불러 자신을 기리는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고 주문했다. 글귀 때문에 며칠을 끙끙대던 세공장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 세공장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대답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지금 전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극도의 공포나 두려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의사들도 말한다. 내가 해야 하는 조심스런 행동들은 철저히 지키겠지만, 근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니 이제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재앙과 온역, 질병 등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유하신다고 약속하신다(대하6:28~30). 또한 극한 열병에서 건지시며(시91:3),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막16:18),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출15:26)이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시23:4)고 하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며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눅13:1~5).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기필코 깨닫는 자에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낮은 울타리 ::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생활의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학교는 개강을 미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실행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혜롭게 재난을 비켜가기 위해 영상예배를 드리고 다중 모임을 자제하는 등 정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는 소규모로, 혹은 가족 단위로 드려지고,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잠시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시간에 다른 행동을 해도 저를 지켜볼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공식모임이 없는 한 주 동안 기도 시간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처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게으름에 진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시선 없이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제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주일에

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을 때야말로 기도도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 결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진 기름조차도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도의 분량이 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던 모습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어도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장수정
sjiang50@gmail.com

저를 본향에 보내주소서



저는 고향이 평양인 탈북민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을 당시 부모님이 당 간부로 계셨기에 핵심계층의 자녀로서 아주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당시 평양 김형직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공포의 대명사이면서 최고 권력기관의 핵심부서인 보위부에서 상위(자료 분석실 지도원)로 근무하던 중 남편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었으며, 우리 가족은 몽고를 통하여 탈북하면 빠른 시일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쪽으로 탈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알곳은 장난인지 국경을 코앞에 두고서 길 안내를 맡은 내몽고 유목민의 배신으로 그만 붙잡혀 우리들은 중국 내몽고에 위치한 <만주리 국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그곳에서 집단으로 탈북하다 붙잡힌 12명의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그들과 같이 하면서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감방 안 사람들을 따라 저도 기도를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월경을 했다는 죄로 조사를 마치고 도문 변방대로 이송되어 북송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그 당시 저의 기도는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간절함에서 나오는 심장의 목소리, 진심 어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문에서 북송되는 바로 그날, 북송되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 부부를 따로 빼내어 북경으로 보내준 장춘 변방 총대의 최고 영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 영도는 직접 도문까지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었으며, 북송되

기 전날, 모든 것을 체념하며 이 땅에서 어찌면 마지막 편지로 남기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써내려갔던 저의 눈물 속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훈춘에서 풀려난 우리는 북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들을 도우셨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북경에서 만난 한국인 목사님의 각별하고 극진한 도움으로 북경 한국대사관을 거쳐 무사히 한국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 한국정착을 위해 필수였던 학문의 길도 열어주셔서 고려대학교에서 최고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으로 공부하여 석,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엘리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탈북민 명강사, 탈북민 전문교수로 활약하면서 한국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던 중, 탈북민 대다수가 저와는 다른 삶,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특히 자살률이 한국 사람보다 4배나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탈북 과정 속에 미혼모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장애인들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장기탁아소와 시설 등에 보낸다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그들이 한국사회의 음지에서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개인적으로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12월 중순 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제가 그곳의 해당 교수님과 미팅 중에 정밀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하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망 그 자체로 괴로웠습니다.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갈 때에 무엇을 해놓고 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고심 끝에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자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젠가는 공자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사상이나 철

탈북 미혼모, 장애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야겠다고, 어둠과 질병, 가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 협회>를 등록하고 항암치료를 계속 받던 와중에 한국 입국 초기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의 강력한 권유와 전도로 2018년 7월 25일 장성기도원 하계산상집회 참석 중에 수중심교단 총회장님의 특별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 평생에 흘려보지 못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의 교수님께서 초고속 스피드로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는데, 대체 무엇을 먹었느냐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고 간암 완치판정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 협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강남교구 기도처에서 기도회를 갖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회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제가 온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고, 한국에 온 탈북민 34,000여 명 모두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고 데려오신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타 교회를 다니던 제가 예수중심교회로 온 것은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여주신 깊은 뜻과 섭리가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마다 환난과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진행형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최대의 소원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내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대표 이나경 집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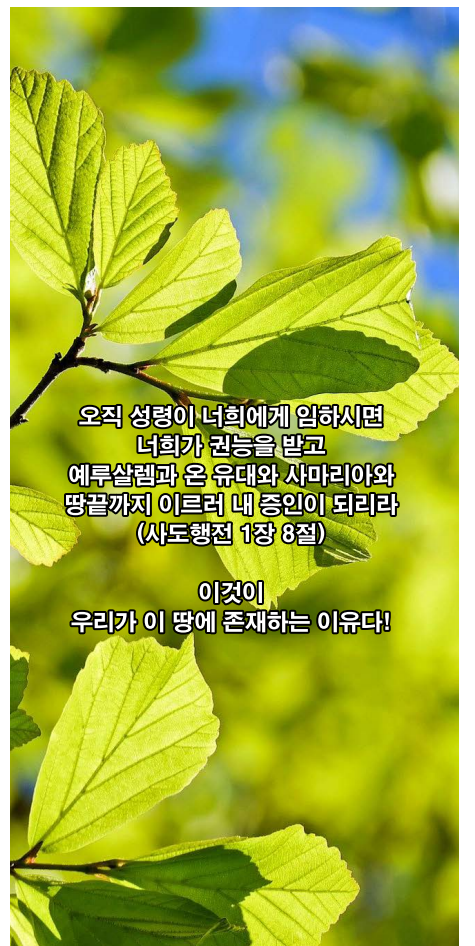
학, 아니면 선행의 방법 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고, 그로부터 인간은 죽은 뒤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어느 때까지 지체하라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더는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 네 땅을 점령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9장 47절에는 단 자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셋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단 자손은 제비 뽑아 받은 그들의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가 그의 영토를 더욱 확장했다고 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도전 앞에 주저할 때가 있다. 이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철저히 준비되었는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서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언젠간 박차고 일어나 내게 주신 비전, 목표, 사명을 향해 뛰어야 한다. 100%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7~80% 준비가 되었으면 일어나 도전하자. 부족한 부분은 부딪치며 차차 개선해 나가자. 도전의 두려움은 잠시일 뿐이다. 그 초기 단계만 뛰어넘으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만족감과 익숙해짐에 따른 안정감이 곧 찾아온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단 자손 지파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지 말이다.

장명훈 집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Good News

예수님을 영접한 중국인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양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서양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 다.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기억에 남을만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